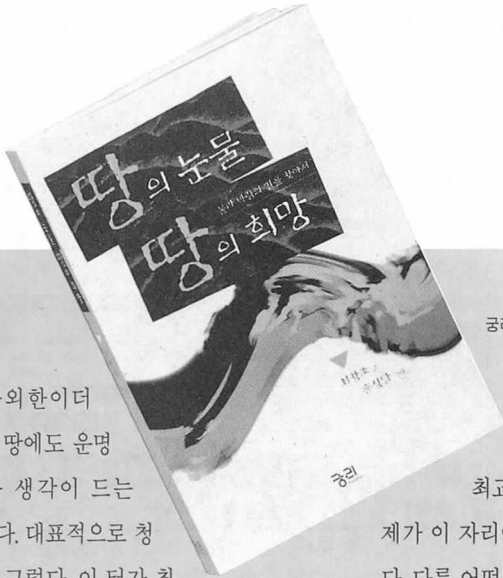


풍수, 그 사랑과 치유의 지리학

최창조의 《땅의 눈물 땅의 희망》



공리/A5변형/352면/13,000원

풍수에 문의한이더라도 가끔 땅에도 운명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터가 그렇다. 이 터가 최

고권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것은 1927년, 3대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용무당(隆武堂)과 경농재(慶農齋) 등을 허물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관저를 세웠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 사령관 관저로 쓰였고, 단독정부가 수립돼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면서 경무대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1960년 윤보선 대통령이 이 집에 들어서면서 이름을 청와대로 바꿨다. 청와대 터는 늘 최고 통치권자를 품에 안고 사는 운명을 타고난 듯이 보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터의 풍수적 특성이 아니다

최고의 권좌를 상징하는 터이니, 풍수적으로 보더라도 무척 좋을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최창조 교수(경산대 풍수학과 객원교수)는 근작 《땅의 눈물 땅의 희망》(공리)에서 예상을 뒤엎고 풍수적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 터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 터가 명당자리기 때문이다. 얼마나 명당인가 하면, '신령의 강림지' 라는 것이다.

내용인즉슨 이렇다. 북악에서 경복궁을 거쳐 광화문에 이르는 터는 백두산 정기를 서울에 불어넣는 용의 목과 머리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서도 청와대 터는 그 기를 모아서 명당에 공급하는 수문자리다. 이 정도면 신령의 강림지라는 표현이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풍수에서는 인사(人事)가 천도(天道)를 넘어서는 안되며, 명당 주산은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 터에 건물을 세

우는 것은 결국 천지의 조화를 망치는 일이 된다.

최교수는 이같은 입장에서 왜 하필 일제가 이 자리에 총독관저를 세웠는가 문제삼는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조선의 풍수관을 일찍부터 깨꿨고 있던 일제가 신성한 자리에 대형건물을 세워 용의 입을 틀어막고 목줄을 조르는 비열한 짓을 했다고 최교수는 보고 있다. 최교수가 청와대 터를 거론하면서 또하나 문제삼는 것은 풍수적으로 천지의 조화를 망친 결과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청와대의 주인들이 대부분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터잡기가 애초부터 나쁜 의도로 시행됐고, 풍수논리로도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 최교수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풍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과 같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신적 권위의 땅의 성격을 자신의 기력(氣力)으로 누르고 낮은 곳으로 임하여 세상을 살피는 것으로 청와대 이전에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하만물의 기 중에 사람의 기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땅의 기운에 휘둘리면 그 역시 청와대 주인들이 걸은 운명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진실한 마음을 지니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라.”

정작 중요한 것은 터의 풍수적 특성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의 역사 의식이라는 최교수 특유의 풍수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교수는 산소자리나 집터 잘 잡아 제 집안 복받기를 원하는 풍수를 ‘술법풍수’라 일컬으면서 오늘의 이기적 풍수는 나라와 겨레를 망치는 ‘지점술’(地占術)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렬하게 비난한다. 도선풍수는 술법풍수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전통지리관이다. 도선선사의 지리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에 대한 사랑이다. “일부러

결함이 있는 땅을 골라 그를 고치고자 함이 도선 풍수의 근본이다. 그래서 도선풍수는 우리 민족 고유의 ‘고침의 지리학’ ‘치유의 지리학’ 이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도선선사와 민족 고유의 풍수관

관악산의 호압사(虎壓寺)는 도선의 풍수정신을 이어받아 세운 사찰이다. 조선초기에 세워진 호압사는 호암산(虎岩山)에 있다. 관악산의 한 자락인 삼성산의 서쪽 끝부분 바위가 호랑이 형상이라 그곳만을 따로 이름 붙인 것이다. 호암산에 호압사라, 특이한 이력이 있을 법한데 “풍수적으로 땅 기운이 쇠락한 곳에 절을 세워 재난을 방지하고 안락을 기원했다”는 절 안내판이 그 정황을 간결하면서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찍이 최교수는 풍수적으로 이 시대가 말세임을 주장한 적이 있다. 풍수에서 풍이란 공기요 수는 물이며, 물과 공기는 생명의 기원인바, 이것들이 오염됐다면 당연히 말세가 아니냐는 논리다. 그래서 최교수는 이 희망없는 땅에서 헛되나마 꿈으로 스스로를 위안한다.

“꿈을 꾸다. 현역을 뺏고 남은 인원으로 풍수 지킴이를 만들고 지리산 일대와 제주도 전역은 경기도, 강원도 하듯이 풍수도(風水道)를 만들어 일종의 에코토피아를 만든다. 풍수, 즉 환경을 파괴하는 자들은 풍수군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그 자리에서 진압, 체포, 원상복구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풍수도에서는 누구도 반풍수적 행위를 못한다. (중략) 꿈에서 깬다. 꿈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어찌 그 바람이 한 풍수학자만의 것이겠는가.

— 이권우 기자